

*Toward
Global
Top Tier*

A new hope is rising up for Hyundai E&C, like the sun coming up through the darkness. What are your resolutions for 2018? How you live today determines what you will be in this year. Hyundai E&C makes a new pledge to take this year as a new chance to take off once again in order to write a new chapter in the industry's history. ▶ Continued on page 6,7

질은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현대건설의 새 희망이 떠오릅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1년 후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2018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관련기사 6, 7면



2018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쿠웨이트 신규 정유공장 해상공사

Terminal 2 of Incheon Airport opens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그랜드 오픈 행사가 1월 12일 열렸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fficially opened its second terminal on January 18 which was built based on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expertise of Hyundai E&C. The grand opening ceremony for Terminal 2 held on January 12 was attended by about 1,000 officials and important figures such as President Moon Jae-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 CEO Jung Il-young and Hyundai E&C CEO Park Dong-wook.

President Moon applauded the cutting-edge facilities, saying that he became

평창 동계올림픽의 첫 관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녹아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1월 18일 공식 개장했다. 앞서 1월 12일 열린 그랜드 오픈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공항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

confident th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ould show the future of global airports.

Terminal 2 is a part of the three-phase national initiative with a focus to transfor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to a hub airport in Northeast Asia. The Hyundai E&C-led consortium successfully completed the interior finishing and the construction of facilities in December 2017. The new terminal is well received with its eco-friendly, highly efficient construction technology adopted by Hyundai E&C.

의 3단계 개발사업이다. 전체면적 38만7389㎡,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복도 끝에서 반대편까지의 거리가 1.3km에 이른다. 건물 지붕 면적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세 배 수준이다. 현대건설은 현대산업개발·현대엔지니어링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지난해 12월 터미널 전체 내부 마감과 부대설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현대건설의 친환경, 고효율 건설 기술이 집약돼 있다는 평가다. '그린'과 '에코'를 콘셉트로 한 건물 곳곳은 공원에 온 듯 녹지와 친수 공간이 잘 어우러져 있다. 조경 면적이 제1여객터미널보다 세 배 이상 넓다. 또한 자연 채광과 함께 자연 환기 시스템, 태양광발전 시스템 등 에너지 저감에 효과적인 첨단 공법을 적용했다.

Topping-out ceremony held in Singapore



The topping-out ceremony for SECI, located on Cecil St., was held on the 38th-floor rooftop on January 15.

The event was attended by about 50 officials and designed to celebrate the smooth completion of

frameworks.

Our company was awarded the SECI project valued at 200 million dollars in February 2015, and the construction will be slated to be finished in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싱가포르 세실 스트리트 오피스 현장 상량식

‘싱가포르 세실 스트리트 오피스 (SECI) 현장’의 상량식이 1월 15일 현장내 38층 루프탑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회사 김정철 건축사업본부장을 비롯해 발주처 Frasers Centrepoint Group의 CEO인 콘 파노테 (Panote Sirivadhanabhakdi) 등 현장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의 메인 골조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상량식은 지붕 슬래브를 콘크리트로 채우는 세리

머니를 시작으로 기준층 점검, 관계자 리셉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철 건축사업본부장은 “성공적인 공사 수행으로 싱가포르 내 현대건설의 위상과 명성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년 2월 수주한 SECI는 총 공사금액 2억달러, 연면적 9만 7510㎡,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현재 건물의 70%가량이 임대됐으며 오는 2분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Newcomers deliver coal briquettes



Newcomers of our company and Hyundai Engineering participated in 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y to help vulnerable people in our society.

About 110 participants delivered

around 10,000 coal briquettes and doled out 140 winter kits to low-income people on January 18.

This year, our company hired about 50 new workers and is providing training programs starting on January 2.

2018 신입사원 사랑의 연탄 배달

2018년 신입사원들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회사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우리 회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의 신입사원 110여 명은 1월 18일 서울 정릉동 저소득층 가구와 영등포 쪽방촌 일대를 방문해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입사원들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 1만여 장과 미리 제작해 둔 겨울 나기 키트 140여 개를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신입사원들은

“처음 해본 연탄 배달이라 힘들었지만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다”고 말했다. 정릉3동 동장은 “전달 받은 물품 덕분에 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올해 50여 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지난 2일부터 입문교육을 실시 중이다. 신입사원들은 건설집합 교육, 그룹 합숙 교육을 수료한 후 2월 중 현업에 투입된다.

제23차 현대건우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개최

우리 회사 전직 임직원 모임인 현대건우회가 1월 10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23차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춘림·곽삼영·연제원 고문을 비롯해 현대건우회 회원과 우리 회사 박동욱 사장 등 5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안전한 현대건우회 회장의 인사말과 이춘림 고문의 격려사, 박동욱 사장의 축사 순으로 실시됐다. 정기총회를 겸한 이번 신년교례회에서는 2017년 결산 및 감사보고, 2018년 예산안 심의 및 신입 임원 선임 등도 함께 결정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안승규 전 플랜트사업본부 부사장이 신임 현대건우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편 현대건우회는 1996년 6월 발족한 이래 현대건설 전·현 임직원이 만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경주우회도로(내남~외동) 준공

우리 회사가 시공한 경주우회도로(내남~외동)가 지난해 12월 31일 준공됐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경주시 국도 대체우회도로 중 1단계로, 내남~외동 간 14.78km 구간을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로 신설하는 공사다. 우리 회사는 2006년 2월 첫 삽을 뜬 후 11년 10개월 만에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현장 관계자는 “용지 보상, 협력사 부도 등 내·외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장 전 직원과 협력



사·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전 공정 무재해(332만 시간) 준공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이번 개통으로 이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년 상반기 기술교육원 교육생 모집

우리 회사 기술교육원에서 2018년 상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과정은 ▶BIM건설관리 ▶플랜트 품질 ▶플랜트전기 ▶플랜트3D설계 ‘국가기간-전략산업 과정’ 4개 학과와 ▶빅데이터 활용 공정·공사관리 ▶건설기계정비 ▶그린에너지시스템 ▶스마트팩토리전기 ‘건설엔지니어양성 과정’ 4개 학과다. 실무진들로 구성된 맞춤형 실

무교육과 현업 중심의 차별화된 커리큘럼이 특징이다. 전년도 기술교육원 졸업생 중 78%(287명)가 취업에 성공했으며 그 중 53%가 현대건설 및 계열사에 입사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서는 기술교육원 홈페이지(http://edu.hdec.c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2163-0398-9

이다영 선수, 프로배구 올스타전 MVP 등극

현대건설 배구단의 이다영이 프로배구 올스타전 여자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이다영은 1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7-2018 프로배구 V리그 올스타전’에서 5득점에 성공하며 V-스타팀의 공격을 이끌었다.



지난 시즌까지 3시즌 연속 여자부 세리머니상을 거머쥐었던 이다영은 전체 23표 중 20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한편 전반기를 3위로 마감한 현대건설 배구단은 1월 25일부터 선두 추격에 나선다.

그룹사뉴스

현대자동차그룹 ‘책임경영’ 통해 혁신 주도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1월 2일 신년 메시지를 통해 올해 경영 방침으로 ‘책임경영’을 제시하고 2018년이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동차산업의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를 위해 ▶권역별 책임경영 체제 확립 ▶주력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신규 시장 개척 ▶신차 출시 확대 ▶미래 핵심 기술 투자 강화 ▶유기적 협업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몽구 회장은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등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 2위를 달성하고 최고 수준의 품질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철강 사업과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첨단 소재 개발을 확대해 완성차의 품질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향후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통합 신사업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중국 기업공익발전지수 1위



현대자동차그룹이 1월 20일 발표한 중국사회과학원의 기업공익발전지수 평가에서 중국 내 전체 기업 중 1위에 선정됐다.

중국사회과학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사회공헌 활동을 평가하는 중국의 권위 있는 평가기관으로 매년 총 300개의 중국 내 국유기업·민영기업·외자기업을 평가해 점수와 순위를 공개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한·중 대표 경제협력 기업으로서 중국 내 사회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아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기업공익발전지수’가 처음 시행된 2014년 이래 외자기업이 중국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제치고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첫 사례다.

기아자동차, 신형 K3 공개



기아자동차는 1월 15일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 센터에서 열린 ‘2018 북미 국제 오토쇼(2018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에서 신형 K3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6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신형 K3는 ▶역동적 디자인에 볼륨감을 더한 업스케일 다이내믹 디자인 ▶스타일리시하고 실용적인 실내 공간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 등을 갖춰 기존 모델보다 한층 진화한 것이 특징이다.

Enjoying Seoul's cultural center on the cheap

Jan 04

For art lovers, Samcheong-dong in central Seoul is an attractive neighborhood. To demonstrate how it is truly possible to visit museums and galleries in Samcheong-dong, eat lunch and dinner and even enjoy coffee and a glass of wine, this reporter went out on a cultural expedition with a wallet containing only 20,000 won in cash.

11 A.M. LITERARY MORNING

This trip starts at Gwanghwamun Square. Head to the Court Costume Experience Program booth in the middle of Gwanghwamun Square. Anyone can try on their royal garments for free.

12 P.M. OBSERVATORY

Go up to the open garden on the eighth floor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in front of Gyeongbok Palace. Here, you can get a panoramic view of central Seoul including the palace and a bird's eye view of the Blue House. At the museum, there's a special exhibition titled "Korean Sports, A History Written in Sweat," to celebrate the upcoming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the permanent exhibitions are also worth a visit.

1 P.M. NOODLE SOUP FOR LUNCH

If you want to really taste the quintessential bowl of ramyeon, visit Gyeong Chunja Ramyeon-ttaengginennal, located next to the Jungdok

Library in Samcheong-dong. This Instagram foodie hotspot usually has a line of hungry people out the door. Get the basic noodles for 3,500 won or get them with cheese for the same price. It takes about 13 minutes on foot



1 View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2 Court Costume Experience Program
3 Visiting free galleries 4 Sujebi, traditional Korean soup

to get here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2 P.M. GALLERY HOPPING TOUR

There are dozens of galleries in Samcheong-dong. Visiting free galleries should be enough to satisfy your thirst for great art. A few meters off of the main street, you'll see Gallery Chosun. A few steps from Gallery Chosun is another famous gallery, Hakgojae. Kukje Gallery, located next to Hakgojae, is one of the most popular galleries in Samcheong-dong. If you have the energy to visit one more, visit the National Folk Museum.

4 P.M. SNACKTIME

Turn right out of Kukje Gallery and walk down the main street of Samcheong-dong. About 300 meters (0.18 miles) down the street, there's a cafe called La:pland de Caffé. Before 5 p.m., a cup of coffee here costs only 2,000 won. Feeling a little hungry? Another must-visit spot in Samcheong-dong is the old Pungnyeong Rice Mill. Experience

the taste of this mill's exceptional rice cakes by simply ordering teok ggochi, or fried rice cakes on a skewer. It costs only 1,000 won.

6 P.M. SUJEBI FOR DINNER

It's dinner time and one of the most popular restaurants in the area is the legendary Samcheongdong Sujebi. Sujebi is a traditional Korean soup full of vegetables and hand-torn noodles. This dish, which costs 8,000 won, comes in a traditional-looking pot.

7 P.M. MUSEUM AND MUSIC

On Wednesdays, free events are organized by arts centers and museums. The last Wednesday of every month is also designated as Culture Day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You can check out what programs are offered free on the ministry's website. On a Culture Day, you can also attend a music concert held at th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for just 1,000 won. You must book a ticket beforehand by visiting the website, happy1000.sejongpac.or.kr.



Hyundai's 2019 NEXO Fuel Cell Electric Vehicle Named Digital Trends Top Tech of CES 2018

Capitalizing off its successful unveiling at the 2018 Consumer Electronic Show (CES),



the Hyundai 2019 NEXO Fuel Cell Vehicle has received another accolade as the Digital Trends Top Tech of CES 2018 in the automotive category. NEXO is Hyundai's second-generation of commercialized fuel cell electric vehicle that will be available in select markets around the world starting in early 2018. The NEXO's 370 mile range is an improvement of 105 miles over Tucson FCEV.

KIA Motors Releases Renderings Of All-New 2019 FORTE Sedan

Ahead of the global debut of the all-new 2019 Kia Forte sedan at the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 (NAIAS), Kia Motors revealed design renderings of the compact sedan. While the third-generation Forte retains its sporty and youthful image, it has graduated with a more sophisticated appearance thanks to a number of sleek and dynamic styling cues inspired by the Stinger fastback sport sedan. What is most noticeable is that the Forte has evolved from a cab-forward design to one that is decidedly swept-back.

Hyundai E&C Today's Online Event **Tune in 2 U**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s and wishes?

The topic of the 347th edition is "New Year's resolutions and wishes." We received many e-mails all over the world between January 12 and 19. We would like to thank all employees for sharing their wishes and resolutions. Wishing you a good luck this year, we are going to introduce the best comments.



Aljean Abia (Qatar, Doha Office)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stay healthy. Now, I started to eat healthy food, go on a diet and do exercise. I began walking and jogging every day. In addition, I will try to start a small business for the future.



Jesson Mapanao

(Saudi Arabia, Ethane Deep Recovery Facility)

I have 3 new year resolutions in 2018. First is to reduce my weight from 74kg down to 65kg by reducing my food intake and going to gym twice a week. Second I have to sleep earlier, before 9 pm. Third I will have to set aside 10% more savings from my monthly net salary in preparation for the college education of my 22-months-old child.



Deepan thirumaran.R

(UAE, MIRFA Independent Water & Power Plant Project)

Actually it doesn't need a special day to start good things. Anyway everyone needs some motivations. I just want to be better from yesterday, so I started a few things. First, I started intermittent fasting to keep fit and healthy. I also started to learn Arabic language through online and books. At last, I started to spend 30 mins in online typing training to improve my typing skill.



Jesus Del Rosario Bucud

(Kuwait, EPCC of the New Refinery Project)

First, I'm looking forward to writing a book. I never tried writing before, but I always have some good ideas about story lines and plots. If I can complete a book, it would be a really great accomplishment for me. Second, I want to stay fit and have a healthy life style. I would like to continue exercising. I'm trying my best to control what I eat. Third, I'm planning to start doing sketches and designing. They will be paintings and sketches about the things I like. I will share my artworks on Instagram or FB. Lastly, I would like to spend my free time in learning another language. I probably go for Russian since I already know a few words and how to read their letters. It's going to be a very busy year for me.



Darwin Ramirez (UAE, SARB Oil Gas Processing, Storage)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stay fit and healthy physically, emotionally and spiritually. I will focus on things that will benefit both me and my family. I also empower myself to be more productive and more creative to achieve my goals.



Hilal Ahmed Daril

(Kuwait, EPCC of Al-Zour LNG Terminal Project)

I wish a peaceful year around the world without violence. This year I wish my family to be with me. My resolution is to do more hard work to advance into a higher position in this global company.



Ferdinand Catayong Punzalan

(Qatar, Lusail Expressway Package-1)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manage my time wisely to keep myself connected with my loved ones without affecting my work efficiency and health. I believe that my busy work schedule abroad is no excuse for any unfavorable outcomes. Through a good time management that will keep my work-life balance, I can ensure a healthy lifestyle and strong family relation. I will be more organized, breakdown my jobs into priority levels, use my tech-gadgets wisely, and fully align my productivity to our company's objectives to deliver quality outputs. Like one of the famous quotes, "Until we can manage time, we can manage nothing else."



Shellwin Mangulabnan

(Saudi Arabia, Ethane Deep Recovery Facility)

My New Year's resolution is to be more efficient at work since I had my first IT experience here through Hyundai E&C's Saudi Arabia SEED Project. I never thought that I would be an IT person because it's hard to find a job related to your major right after the graduation. Since my boss Kim Seung-mo engaged me as an IT expert, I have learned a lot, and my life has been more exciting than before. I will try to make this year the best one of my life.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그룹사 바로 알기 ①현대차 한국인 및 외국인 직원들의 계열사 간 이동을 돕고자 이번 호부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을 소개하는 '그룹사 바로 알기' 코너를 연재합니다. 탄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발자취를 살펴보세요.

3월 출시 예정인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



창립 반세기 만에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
친환경, 자율주행차 기술을 선보이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다



1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38가지가 넘는 친환경차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2 제너바 모터쇼의 현대차 부스 모습. 3, 5 현대차는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랜드 가치 약 15조원의 평가를 받으며 2017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 중 35위에 올랐다. 4 미국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 6 현대차는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로 럭셔리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진은 G80 스포츠. 7 현대차는 포니부터 쏘나타, 엑셀, 그랜저에 이르기까지 한국 자동차의 역사를 써왔다.

Hyundai Motor Company Korea's most prominent car brand making your auto life more comfortable and convenient

The world-class automaker with an annual output capacity of 5.30 million vehicles

Hyundai Motor Company was established by the late founding chairman Chung Ju-yung in 1967 when there were no decent vehicles made in Korea. In its Ulsan factory whose construction was completed in 1968, the company released the Cortina compact sedan in association with the U.S. Ford Motor Company. In 1976, the automaker launched the Pony, the country's first own-brand and mass-produced model. By exporting the Pony to Ecuador, Hyundai Motor Company made inroads into the global auto market in nine years after its foundation. Since that, the car manufacturer has put on the market the Korean-made best-selling car models such as the Hyundai Excel, the Hyundai Sonata and the first-generation Grandeur. In 1991, the company developed the Alpha Engine, the first independently developed based on the country's own technology, which led to raising the level of Korean auto industry. The Hyundai Avante, the automaker's global best-selling model, made its debut in 1995. Hyundai Motor Company currently produces 5.30 million units in 20 manufacturing facilities located in eight countries on an annual basis.

The world's 35th most valuable brand with brand value of about 1.5 trillion won

Hyundai Motor Group was formed in 2000 through the purchase of Kia Motors, the country's second-largest car maker, in 1998. Since the establishment, Hyundai Motor Group made its all-out effort for quality management. As a result, Hyundai brands began to be recognized as "good" cars, not "cheap" ones. The Hyundai Sonata was placed first in the J.D. Power 2004 U.S. Initial Quality Study (IQS), and the Hyundai Genesis was named as the 2009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The automaker's annual sales increasingly rose from four million units in 2011 to over 4.5 million units in 2017. Its brand value has consistently increased as well. Hyundai Motor was ranked in the top 30 most valuable

global brands in three consecutive years. With the Genesis model released in 2015, the company took direct aim at the luxury sedan market. The Genesis G80 and G90 hit the U.S. market in August and September 2016, respectively, and the Genesis G70, unveiled in September 2017, will be available around the world this year.

Preparation for the future with eco-friendly, self-driving technologies

Hyundai Motor Company is poised for the next 50 years by actively responding to environment-friendly,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In this sense, the car manufacturer is planning to be ranked second in terms of green car sales with its over 38 eco-friendly vehicle models to be launched by 2025. Its Ioniq Electric with the official driving certification of 191 kilometers on a single charge hit the market, and the electric Kona compact SUV targeting a range of over 390 kilometers on a single charge will be released in the near future. Notably, Hyundai Motor Group is taking the lead in the development of hydrogen-powered 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technology. In 2013, Hyundai,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mass-produced the Tucson ix FCEV. Currently, the Tucson FCEV is available in 17 countries, contributing to the distribution of hydrogen-powered electric cars around the world. Hyundai's FCEV Nexa to be revealed in March targets a driving range of over 580 kilometers on a single charge, and its maximum output increased by about 20 percent, boasting an impeccable 163 PS of power. The company's self-driving technology has been developing. The autonomous Ioniq Electric met the conditions for Level 4 automation required by the U.S. Society's Automobiles Engineers in January 2017. With an aim to develop highly automated vehicles by 2020 and commercialize fully autonomous vehicles by 2030, Hyundai Motor Group stroke partnerships with self-driving technology company Aurora Innovation.



현대차, 보다 쉽고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창조하는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브랜드

연간 530만 대 생산 능력 갖춘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현대차는 변변한 국산차 하나 없던 1967년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주도로 설립됐다. 이듬해 완성된 울산공장에서 제1차 미국 포드의 소형 세단 '코티나'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1976년에는 마침내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를 출시했다. 포니를 에콰도르에까지 수출하면서 현대차는 창립 9년 만에 세계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에도 엑셀, 쏘나타, 1세대 그랜저 등 내로라하는 국산 베스트셀링 카들을 출시했으며 엑셀을 앞세워 자동차의 본고장 미국 시장에 입성했다. 1991년에는 국내 기술로 독자개발한 첫 자동차 엔진 '알파엔진' 개발에 성공, 한국 자동차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1995년에는 현대차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 '아반떼'가 탄생했고, 1996년에는 지금까지 현대차 연구개발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남양연구소가 세워졌다. 현대차의 해외 생산은 1997년 터키를 시작으로 1998년 인도, 2002년 중국, 2006년 미국, 2008년 체코, 2011년 러시아, 2012년 브라질로 이어져 현재 현대차는 국내 포함 8개국, 20개 공장에서 연간 53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196개국, 24개 해외 판매 거점 및 6150여 개의 딜러 네트워크를 갖추고 전 세계 고객들에게 세계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제공하고 있다.

브랜드 가치 약 15조원, 글로벌 35위 브랜드

1998년에 현대차는 기아차를 인수하고, 2000년에는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10개 그룹사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출범했다. 그룹의 출범과 함께 '품질경영'에 심혈을 기울였다. 2004년 미국 시장조사기관 제이디파워(J.D. Power)의 신차품질조사(IQS) 평가에서 쏘나타가 1위를 차지하고, 2009년 제네시스가 '복미 올레의 차'로 선정되는 등 현대차는 점차 세계시장에서 '싼 차'가 아닌 '좋은 차'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후 꾸준히 연간 판매량을 늘려 2011년에는 400만 대를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중국 사드 문제,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 등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450만5000여 대를 판매했다. 브랜드 가치 역시 꾸준히 상승했다. 2017년 현대차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17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브랜드 가치 약 15조원으로 35위에 올랐다. 이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 평가에서 3년 연속 30위권 브랜드에 포함되며 전 세계 주요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2015년에는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로 럭셔리·고가 자동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 같은 해 12월 초대형 세단 EQ900(글로벌 시장 G90)이 출시됐고, 2016년 8월 대형 세단 G80도 선보였다. G80과 G90은 각각 2016년 8월과 9월 미국 시장에 나란히 진출했고, 지난해 9월 선보인 중형 세단 G70도 올해부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친환경, 자율주행차 기술로 향후 50년을 준비한다

50년간 고군분투하며 세계적 자동차업체로서 입지를 다진 현대차, 현대차는 지난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에서 3대 모델리더비전으로 연결된 이동성, 이동의 자유로움, 친환경 이동성을 발표하며 자동차 산업의 미래인 친환경·자율주행차 기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향후 50년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38가지가 넘는 친환경차 모델을 출시, 친환경차 부문에서 판매량 기준 세계 2위에 오를지는 계획이다. 전기차의 경우 한번 충전으로 191km를 달릴 수 있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출시한 데 이어 조만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0km 이상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 전기차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한번 충전하면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전기차의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FCEV) 부문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연료전지에 충전한 수소와 공기 중 산소가 반응할 때 나오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차세대 친환경차로 수증기 외 유해가스는 발생하지 않아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린다.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차 투싼 ix FCEV를 출시했고, 현재 17개국에서 투싼 수소전기차를 판매하며 전 세계 수소전기차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3월 출시를 앞둔 수소전기차 넥쏘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80km 이상이며, 최대 출력도 기존보다 약 20% 증가한 163마력(PS)에 이른다. 자율주행 기술 또한 날이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는 실제 도로 주행에서 미국자동차공회와 자율주행 기준 레벨 4를 충족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까지 고도 자율주행차, 203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오로라' 등 자율주행 전문기업 등과 기술개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글·사진=현대자동차그룹 홍보팀 정민지·박정



일출 영상 보기

국내의 현장의 일출 현대건설의 국내외 현장 곳곳에서 희망의 해가 솟아오릅니다 <사보신문>에서는 새해를 맞아 현장의 일출 모습을 지면에 담았습니다. 철쭉 같은 어둠을 뚫고 세상을 밝히는 빛 줄기처럼 올 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가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정리=이희정

Sunrise in Hyundai E&C construction sites

현대건설의 글로벌 일출 릴레이

두바이 대관람차 공사 2018년 무술년 새해 아침 두바이의 아침 풍경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기술로 탄생한 세계 최대의 관람차 'Ain Dubai'의 웅장한 자태가 드러났는데요. 현재 현장(공정률 66.4%)은 전 직원이 인태워성(因泰爲成)의 각오로 일지단결(一志 단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이름을 이코 두바이와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의환 차장
Ain Dubai This is the wonderful view in Dubai in the first morning of this year. It is a splendid sight of Ain Dubai, the world's largest Ferris wheel developed based on our own technology. As of now, 66.4 percent of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We will do our best to impress the name of Hyundai E&C here in Dubai and around the world.



쿠웨이트 신규 정유공장 해상공사 해상 강관파일 형태와 콘크리트 작업이 한창인 쿠웨이트 신규 정유공장 해상공사 현장입니다. 2018년은 가장 중요한 해상 인프라 공정을 마무리하고 상부 장비 설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내년도 준공을 위해 현장의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상호 대리
Offshore facility for Al-Zour refinery in Kuwait The construction site is planning to finish up the construction of offshore infrastructur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project, and install surface equipment throughout this year. All our employees are making an all-out effort to complete the project next year.



화양-적금2공구 실을 에는 듯한 주위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강풍. 간담이 서늘해지는 차가운 바다의 너울을 두 차례 극복한 끝에 드디어 화양대교의 주탑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부족한 공기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철주야 우리 현장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모여 공정을 60%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 첫날, 새벽 바다를 바라보며 성공적인 화양대교의 준공을 위해 기도해 봅니다. 이장걸 과장
Construction Zone 2 between Hwayang and Jeokgeum in Korea Pylons of the Hwayang Bridge have been successfully built despite the piercing cold, nipping wind and heaving seas. This project is half-done in spite of the tight schedule and poor weather conditions. It is all thanks to the great effort and passion of our employees in the construction site. On the first day of this year, we all pray fo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Hwayang Bridge.

신안울원자력 1·2호기 국내 최초 100% 국산화 원자력발전소 신안울 1·2호기 현장입니다. 현재 현장의 종합 공정률은 98.6%를 넘어섰고 있는데요. 1호기 준공(2018년 12월)과 2호기 고온기능시험(2018년 7월)을 앞두고 현장 전 직원이 만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술년 동여의 황금태강 징기를 부여 받아 준공을 기원합니다. 조도연 차장
Shin Hanwool units 1 and 2 in Korea Here is the construction site for Shin Hanwool units 1 and 2, Korea's first nuclear power plants that succeeded in the 100-percent localization of core equipments. Our employees are making a concerted effort to finish the construction of unit 1 in December 2018 and conduct the hot functional test (HFT) for unit 2 in July 2018.



우간다 진자교량 건설공사 동부 아프리카 최초로 사장교를 짓는 우리 현장은 우간다의 교통 핵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의 공정률은 현재 66.45%를 넘어섰고 있으며, 밤낮-휴일 없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원공 후 동부 아프리카의 랜드마크 구조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동혁 사원
Jinja Bridge in Uganda This project, aimed to build the first cable-stayed bridge in East Africa,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olving heavy traffic congestions in Uganda and developing the country's economy. As of now, 66.45 percent of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Once finished, the new bridge at Jinja will be regarded as a landmark in the region.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공사 2018년 새해 아침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공사 현장입니다. 현대건설은 한국을 대표해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교량을 열사의 땅 쿠웨이트에서 짓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의 공정률은 90%로, 만만치 않으나 현장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념비적(紀念碑的) 해상교량(36km)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중 차장
Sheikh Jaber Causeway in Kuwait As Korea's primary builder, Hyundai E&C is building the Sheikh Jaber Causeway, one of the longest cross-sea bridges worldwide, in Kuwait. This project is currently inching closer to completion. We pledge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the 36-kilometer cross-sea bridge which is expected to be a monumental structure to enhance Korea's national prestige.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아름다운 도시 여수. 우리 현장은 바닷가에 1360m에 달하는 방파제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준공과 함께 'Ocean Organ' 이 울려 퍼지는 세계 최초의 벨로디 방파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느껴볼 수 있도록, 고품질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우 차장
Counter facilities of Yeosu New North Port in Korea Yeosu is a beautiful city full of tourists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Our construction site is in charge of constructing a 1,360-meter breakwater on the coast of the city. We are working hard to successfully finish this exceptional project and make Korean visitors and tourists from all around the world impressed with technological prowess of Hyundai E&C.



스리랑카 킬롬보 힐시티 여기는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입니다. 현장은 현재 24%의 공정률로, 호텔등 16층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땀과 모기와 싸우며 서로 끈끈하게 단합해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스리랑카에 실존하지 않던 유명한 프로젝트로 기억될 것입니다. SKEEL. 한강 파이팅! 김용규 대리
Keells City in Sri Lanka Here is Sri Lanka, an island country in the Indian Ocean. As of now, 24 percent of the Keells City project was completed, and we are currently working on the construction of the 16th floor of the hotel building. We all wish that the waterfront development project will be remembered as a landmark as popular as the country's black tea.



쿠웨이트 알주르 알엔지 수입항 2017년, 쿠웨이트 알주르 알바다에 LNG 수입항 프로젝트 부지의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불가능으로 여겨지던 부지 조기 핸드오버(hand-over)도 전 직원의 피나는 노력에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해상 정안 및 취수시설 공사에 들어가는데요. 모두가 힘을 합쳐 마부위징(磨斧齋鎗)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찬 차장
Al-Zour LNG Import Terminal in Kuwait Land reclamation for the Al-Zour LNG Import Terminal project was completed in 2017. This year, we all set out for the construction of offshore berthing and intake facilities. For this to succeed, we will make relentless efforts with perseverance.



- 1 싱가포르 마리나 사우스 북항개발
2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리코루즈 정유공장
3 사우디 쿠라야 IPP 연계 2차 송전선 공사
4 싱가포르 태풍성 매립공사 2단계
5 싱가포르 해저 유티리티 공사
6 은평성모병원
7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공사
8 힐스테이트 일산
9 하니글로벌 인재개발원

취미 권하는 사회,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트렌드 따라잡기 '취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나온다. 한마디로 좋아서 하는 일이다. 돈은 안 되지만 좋아서 돈을 써가면서 집중하는 일이 바로 취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취미에 대한 개념도 변화했다. 취미가 산업이 될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즐기 위해서 하던 취미가 진화해서 직업이 되기도 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취미의 위상이 격상되고 있다.

글=김용섭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

왜 한국의 기성세대는 독서와 음악 감상을 취미라고 대답했을까?

한국의 기성세대들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독서, 음악 감상, 등산 등을 유독 많이 얘기한다. 엄밀히 이걸 자신의 진짜 취미라기보다는 돈 들이지 않고 하는 여가활동을 얘기한 것일 수 있다. 누구나 취미로는 자주 언급하지만 책과 음반 판매가 계속 하락세인 게 우리 현실이다. 책 읽고, 음악 듣고, 산에 오르는 건 가장 만만한 활동이지만, 이걸 단순히 취미라고 할 순 없다.

원래 취미라는 것은 꽃혀서 몰입하는 활동이다. 돈이 들기 마련이다. 뭔가가 좋아서 꽃히는데 여저 돈을 안 쓰고 배길 수 있을까. 독서를 진짜 취미로 삼으려면 책도 많이 사고, 많이 읽기도 해야 한다. 베스트셀러를 몇 권 겨우 읽고선 독서를 취미라 할 수는 없다. 음악 감상을 하려면 음반도 사고, 오디오도 사고, 공연도 가야 한다. 라디오로 음악 듣는 게 전부면서 음악 감상을 취미라고 할 순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취미에 돈을 쓸 만큼의 여유가 없었다. 먹고사는 것도 빠듯했고, 자식 키우라 내 집사라 저축하라 부모 모시라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은 우선순위에 밀리고 만다. 취미를 가지는 게 사치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걸 과거 얘기다. 아직도 취미가 제대로 없다는 건 이번 인생은 그냥 시시하고 재미없게 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생의 품격은 '돈 버는 것 외에 얼마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느냐'에서 나오는지도 모른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취미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성세대에게 취미는 여유로움을 상징했다. 기성세대 중 돈을 많이 번 이들은 꼭 해외여행이나 예술, 공연, 골프, 와인 등을 즐기 시작했다.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취미를 갖고 즐겼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Y세대라고도 부르는 지금의 2030세대)에게 취미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흥미로운 건 회사에서도 연봉 많은 부장보다 연봉 적은 신입사원이 여행도 더 많이 가고, 공연도 더 자주 보는 등 취미에도 돈을 더 쓴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취미에 심하게 빠진 '덕후'도 많다. 밀레니얼 세대가 외쳤던 'YOLO'라는 화두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는 의지다. 이들은 내 차, 내 집 같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공유경제를



밀레니얼 세대에게 취미란 필수
취미가 없는 자에겐 기회도 없다
돈을 써서 취미를 찾아내는
취미 큐레이션 서비스도 등장

받아들이고 다양한 경험치를 축적하는데 관심이 크다.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일상 소비 품목에서 돈을 아끼고 야간 비용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돈이 많아서 취미를 누리는 게 아니라 취미를 누리기 위해 다른 데 쓸 돈을 아끼는 것이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약진하면서 유흥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술 소비가 계속 줄어든다. 기성세대는 20·30대 때 술을 가장 많이 마셨지만, 이들은 술도 덜 마신다. 술 대신 취미, 즉 술 마시며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서 자기 취미에 집중하는 삶을 더 선호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단어가 많이 오르내리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퇴근 후의 삶이 보장돼야 하는 시대다. 취미의 진화가 만든 조직 문화의 변화이자 사회적 변화다. 회식도 크게 사라지고 관성적 야근도 사라지는 중이다.



덕후 전성시대, 취미가 없는 자에겐 기회도 없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덕후'라는 단어의 의미도 달라졌다. 덕후는 일본어 '오타쿠(otaku, 御宅)'에서 따온 말이다. 원래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에 광적으로 몰두하며 사회성 없이 혼자만의 세계에 빠진 이들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젠 한 분야에 깊이 몰입해 특별한 능력을 쌓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다. 덕후가 중요한 생산자이자 크리에이터로 격상됐다. 과거에는 전문가가 되려면 국가고시 자격증이나 박사 학위가 필요했다. 오랜 경력을 쌓는 것도 전문가의 길이었다. 그런데 이런 길 말고도 전문가가 되는 또 다른 길이 바로 덕후다. 물론 모든 분야에 적용되진 않지만 적어도 콘텐츠·문화·비즈니스 분야에선 이미 꽤 많은 덕후가 전문가로 자리 잡고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애정이자 집착은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자동차 리스토어 열풍이 불때 그 분야 최고 전문가는 올드 카를 좋아하던 덕후였고, 취미를 곧 사업으로 전환했다. 현재 국내 메이저리그 중계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해설자들도 MLB 전문가이기 이전에 MLB 마니아, 즉 덕후였다. 국내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CEO들도 어릴 적 게임 마니아들이었다. 지금은 억만장자가 된 그들이지만, 과거에 게임만 하던 그들은 부모님께 '너 커서 뭐 될래'라는 애길 들었을 거다. 그러나 더 이상 덕후가 '루저'나 사교성 없는 이미지로만 비춰지지 않는다.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력을 갖고 그 분야에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덕후 전성시대는 곧 취미의 시대를 말하기도 한다. 좋아서 깊이 파고든 취미가 없다면 덕후가 될 기회도 없으니까.

취미 큐레이션 서비스의 등장, 돈을 써서 취미를 찾아내다

취미가 필수가 된 시대답게 정작 자신에게 어떤 취미가 맞을지, 어디 가서 배울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취미 큐레이션 서비스가 속속 등장했다. '하비박스' '하비인더박스' '하비풀' 등 취미 큐레이션 서비스에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키트를 1~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배송해준다. 여러 취미를 경험해 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내는 것이다. 여러 활동을 다양하게 시도해보아야 그중에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지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경험을 확대시키는 데 관대한 밀레니얼 세대들에겐 이런 취미 큐레이션 서비스는 합리적이다.

취미 큐레이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기도 한다. 오프라인 강좌를 열어 배울 수 있게 하는 곳도 있다.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취미나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도 활발하다. 이른바 취향 공동체가 되는 셈인데, 이를 통해 서로의 취향과 취미를 더 심화시킨다. 과거엔 혼자서 했던 자기의 취미 심화 과정을 이젠 다양한 서비스 업체와 교육 업체, 그리고 취향 공동체라는 커뮤니티까지 결합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취미 권하는 사회가 된 것은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졌단 의미다. 또한 개인의 시대가 됐음을 의미한다. 취미와 취향에 대한 관심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자 자신에 대한 집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걸 밀레니얼 세대만의 이야기도, 덕후만의 이야기도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이제 당신의 취미가 당신의 인생의 방향과 깊이를 알려줄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취미를 가졌는가? 취미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피플 인사이드 개그맨 김영철, 방송인 타일러가 최근 『김영철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를 펴냈다. 책은 SBS 라디오 <김영철의 파워 FM>의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코너에서 시작했다. 이 코너에서 김영철은 매일 청취자가 보내온 사연을 바탕으로 타일러에게 영어 표현 한마디를 배운다. 간단하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 표현들을 맥락과 의도에 맞게 ‘진짜 미국식 영어’로 찾아가는 과정은 좌충우돌, 흥미진진 그 자체다.

글=신연선 <채널에스> 기자 / 사진=한정구

신년 계획 1순위가 영어 공부?!

김영철 타일러에게 배우는 ‘진짜 미국식 영어’

영어 배우기? 영어권 문화 알아야

Q. 책 서두에 타일러씨가 “가장 미국적인 맛이 두드러진 표현”을 담았다고 적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타일러 한국에서 하는 국어 교육을 보면, 틀에 잡힌 표현을 많이 쓰거나 문법을 중시하고 올바른 철자나 단어의 유래까지 따지면서 가르치는데요. 영어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특히 미국은 그냥 흘러나오는 표현, 그리고 웬만하면 간단한 단어들로 구성된 표현을 선호해요.

Q. 언어를 배우려면 그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때문에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영철 ‘한국 사람 다 됐다’라는 말이 있는데,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You’re so Korean’으로 표현했죠. 타일러가 말하기를 “한국인이 다 됐다는 말이 미국인 입장에서는 칭찬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문화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인 거죠. 결국 ‘so’라는 부사를 사용해 ‘너 정말 한국적이다’라는 뉘앙스로 ‘You’re so Korean’이 됐어요. 사실 찝찝할 때도 있는데요(웃음).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타일러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되는 말은 특히 어려워요. 미국 맥락에서는 그런 말을 바로 옮겨서 말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 다 됐다’는 표현도 미국 사람이 들으면 ‘네가 우리 것이 됐다, 네 것이 사라졌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미국에서 ‘You’re such an American’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그냥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맥락과 의도를 파악해야죠.

김영철 ‘그게 말이니 막걸리니?’도 그랬어요. 자꾸 ‘rice wine’이 나오니까요(웃음). 제가 이진 말이 안 되는 경우에 쓰는 표현이니까 ‘I think it is ridiculous’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타일러가 좋은 시도인데 그것보다는 ‘wait, what?’이 더 어울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호흡과 연기가 필요해요. 단조로운 톤으로 하면 그건 또 아니니까요. 저는 그래서 타일러와의 방송으로 영어가 다시 재미있어졌어요.

우리 어차피 미국인이 아니다

Q. 한국 사람들은 공부하는 양에 비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타일러 한국에서 언어교육의 기준은 숙달도예요. 얼마나 외웠



타일러 라쉬(왼쪽)와 김영철이 카메라를 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 숙지했느냐, 하는 거죠. 어휘와 문법을 짝 나열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언어는 활용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덜 알고 있어도 그걸 얼마나 다양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이 표현을 했을 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Q. 확실히 한국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김영철 우리 모두 학원에서 주눅이 풀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지, 생각하고요. 근데 다음 시간이란 없는 것 같아요. 틀리고 또 틀려도 괜찮아요. 실수를 줄여가면 되니까요. 저도 분명 타일러가 가르쳐준 표현인데 비슷하게 또 틀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Q. 타일러씨가 “콩글리시도 영어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타일러 한국은 ‘국립국어원’이 있었어요.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나라마다 영어가 다르니까요. 영국은 모르지만 미국은 영어를 공용어로 쓰더라도 공식적인 ‘국어(國語)’가 존재하지 않아요. 주(州)마다 알아서 하는 거고요. 아예 주어(州語)가 없는 곳도 있고, 불어나 스페인어도 같이 주어로 정한 데도 있어요. 영어란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문법에 맞게 쓰지도 않는 게 미국식 영어고요. 그러니까 콩글리시도 한국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간 영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것도 영어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적인 맥락이 있을 때 그래요. 제가 맥락을 계속 강조하는데, 어떤 문화적 맥락은 미국식 문화에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선배’나 ‘후배’ 같은 단어가 그렇잖아요. 영어권에서 온 유학생들도 그 말을 그대로 쓰거든요. 옮길 수 있는 말이 적당히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말이나 표

현을 빌려 쓰는 건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2외국어, 세계관을 바꾸다

Q. 타일러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타일러 무엇보다 책 읽는 걸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언어를 배울 때 중급 정도는 돼야 책 읽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랬어요. 아예 초급부터 책을 읽었죠. 왼쪽에 만화가 나오고 오른쪽에 스토리가 나오는 책을 읽었어요. 그런 책을 한국어 2급부터 시작했어요. 2급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문법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니 배워지더라고요. 힘들긴 하지만요. 또 사전을 찾지 않았어요. 사전이 언어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언어란 습득하는 과정인데 그건 답을 알려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깨달음의 순간들이 있어야 하니까 잘 모르는 걸 물어다 봐야 해요. 모르는 단어도 어떤 상황에서 반복이 되면 어떤 내용인지 딱 깨닫게 되거든요. 언어는 그렇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디오·팟캐스트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Q. 한국어에 어떤 매력력을 느꼈던 건가요?

타일러 제 세계관을 바꿔줬죠. 일단 어순 때문에 사고의 순서가 뒤집혀야 해요. 어휘 구성 방식도,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도 영어와 다르니까요. 조선시대 때는 폐쇄적이었고 동양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죠. 그런 시선을 서양권에서는 잘 접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그걸 언어로 접하다 보니 새로운 사고나 세계관이 추가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영어를 공부해 많은 분이 ‘사고가 바뀌는’ 경험을 하셨으면 해요. 사물을 이렇게 다르게 인지해도 된다는 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죠.

Q. 『김영철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 책의 사용법을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타일러 이 책이 독자의 생각을 깨뜨렸으면 해요. 책 속 단어를 보고 그냥 외우면 절대 안 돼요. 이 책을 통해 맥락을 이해하고 맥락 옮기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책에 수록된 QR코드를 찍어서 팟캐스트도 꼭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Q. 영어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김영철 본인의 한국말을 먼저 점검하라고 하고 싶어요. 한국말을 잘하면 영어도 잘할 거예요. 언어는 같이 오더라고요. 과묵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영어를 배운다고 유창해지겠어요. 언어 습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영어도 ‘too much’예요(웃음). 많이 해보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림책, 라디오, 팟캐스트로 한국어 공부하는 타일러

‘too much’ 스타일로 들이대며 영어 공부하는 김영철

“언어는 활용 ... 실수 두려워 말고 계속 사용해야 늘어요”

문화칼럼 2018년 새해는 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 해다. 개는 인간의 오래된 '절친'이자 '동반자'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역사와 문화 속에서 기억되고 있는 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글=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인간의 영원한 동반자, 개와 함께 술술(戌) 읽는 인문학

황금개띠 해인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개는 십이지신(十二支神) 중 열한 번째 수호신으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7시부터 9시에 서북서의 사악한 기운을 막아 집과 인간을 지켜왔다. 충성과 의리를 지키는 충복이자 심부름꾼, 안내자, 지킴이, 인간의 동반자 등 상징적 의미로 개에 대한 표현 방식은 시대에 따라 문헌·고분벽화·설화·신앙·그림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국 문화 속의 개 : 사악한 것은 쫓아내고 복을 부르는 집 지킴이

우리나라의 토종 개들 중 삼살개는 삼(쫓는다), 살(귀신·액운)의 순수 우리말로 귀신을 쫓는 개다. "삼살개가 있는 곳엔 귀신도 얼씬 못한다"는 속담도 있듯이 예로부터 악귀를 쫓아내고 땅기운을 누르며 집터와 주인을 지켜왔다. 이렇듯 개는 잡귀와 병, 도깨비, 요괴 등 재앙을 물리치고 집안의 행복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고 전해진다.

조선 후기 풍속집인 『동국세시기』에는 새해가 되면 집집마다 개가 그려진 부적을 광문에 붙였다고 한다. 개의 그림에는 주술적 의미가 있어 나쁜 기운을 물리쳐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집 안 생활 물품에서도 개의 그림을 찾아볼 수 있다. 선조들의 중요 살림살이였던 화로에는 개가 불씨를 보존하는 지킴이로 써 그려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개는 권위의 상징으로도 사용됐다.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는 도장 손잡이에 개 모습을 조각해 권력을 유지하고픈 소망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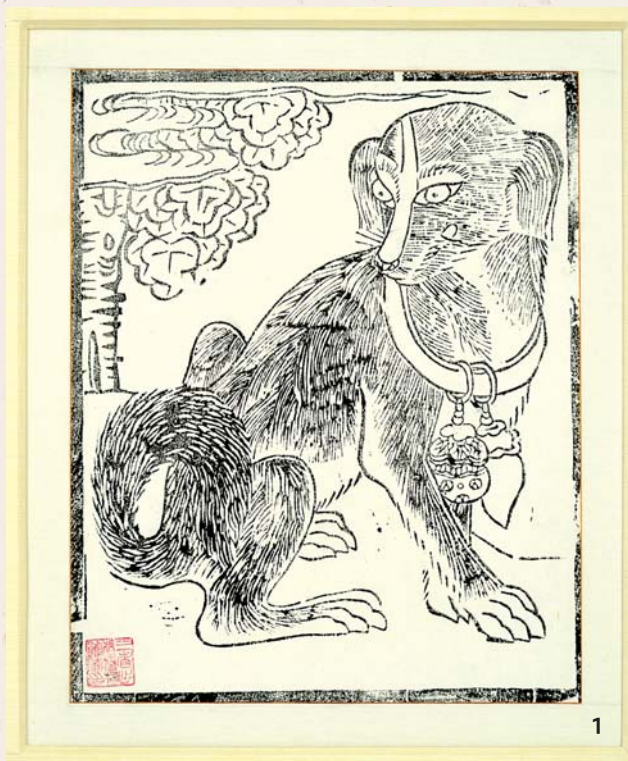
신화와 종교 속의 개 : 이승과 저승의 매개체

중앙아시아와 이집트에서는 개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동물로 인식됐다. 러시아 알타이 지방의 샤먼(종교적 매개자)은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갈 때 지옥문에서 개를 만난다고 믿었다. 우리나라 무속 신화인 『세민황제 본풀이』와 '저승 설화'에서도 비슷한 내세 세계관과 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잘 알려진 제주도 무속 신화 『차사본풀이』에도 하얀 개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가는 길을 '강림차사'에게 안내하는 역할로 등장한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개로 환생하는 윤회설 외에도 개가



조선 민화 '문배도 (門排圖: 문에 붙이는 그림)'.



1, 2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20세기 개 부적과 당삼목구(唐三目狗: 세 개 눈을 가진 개).
3 이집트 룩소르 지역 하트셉수트 여왕 신전에서 발견된 아누비스 프레스코 벽화.



내세와 현세를 잇는 사자의 역할이라 믿는다.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에는 저승 문을 지키는 '삼목대왕' 이야기가 전해진다. 고려시대 '이거인'은 눈이 세 개 달린 개를 우연히 만나 정성껏 돌보며 키운다. 갑작스레 삼목구가 죽게 되자 이거인은 후하게 장사를 치러준다. 세월이 흘러 죽은 이거인은 저승길 첫 번째 관문에서 삼목대왕을 만난다. 이거인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삼목대왕은 그가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이거인이 이승으로 내려와 팔만대장경을 완성했다는 설화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다. 장례 절차를 주관하는 '아누비스'는 검은색 개의 머리와 인간의 몸을 가진 반인반수의 신이다. 아누비스는 죽은 자의 심장을 달아 진실한 자는 다시 살려 보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오시리스' 신에게 인도해 심판받게 하는 저승사자 역할을 한다. 이는 아누비스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무서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부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호자임을 의미한다.

감동적인 실화 속 개 : 충견들 이야기

도저히 개가 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다. 위인(偉人)만큼 잊을 수 없는 공적을 쌓은 위견(偉犬)들은 일화를 넘어 동상으로 만들어져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된다. 우리나라에도 충견으로 유명한 '오수 개'가 있다. 이 이야기는 고려시대 최자의 『보한집』이라는 문헌에 실려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다. 오수 개는 술에 취해 풀밭에 잠든 주인 '김개인'을 자신의 목숨과 바꿔 불로부

해 마을 이름을 오수라 불렀고 동상을 세웠다.

가까운 일본에도 주인의 모습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한 '하치'가 있다. 도쿄대에서 교편을 잡았던 '우에노' 교수에게는 하치라는 강아지가 있었다. 항상 시부야역에서 출퇴근하는 교수를 하치는 매일같이 배웅하고 마중했다. 1925년 5월 교수가 갑작스레 감의 중 쓰러져 급사하고 만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하치는 그 후 10년 동안 시부야역 앞에서 그를 기다리다 생을 마감한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시부야역 앞에 하치 동상으로 만날 수 있다.

스위스에는 구조견 '베리'가 있다. 베리는 알프스산에 위치한 수도원에서 주변의 눈 덮인 산길을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조난자와 실종자를 구조했다. 알프스의 강한 추위와 눈보라로 두려워하지 않는 베리는 12년 동안 41명의 목숨을 구해냈다. 스위스에서는 그의 희생정신을 기려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하고 주검을 '베른 자연사박물관'에 안장시켜 보존하고 있다.

개와 인간의 관계 : 가족과 애완을 넘어 동반자로

저출산, 핵가족화, 1-2인 가구가 보편화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이에 개가 인간의 삶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연구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최근에 발표한 연구에는 반려견이 노인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개띠 해로 개와 인간의 동반자적 관계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펫터켓(펫+에터켓의 합성어)'과 '동물 학대'에 대한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 인간도 개도 행복한 무술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터 끝까지 지킨 충견이다. 이후 사람들은 오수견의 충직함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

생각의 좌표 | 수명이 늘어난 '인생 100세 시대', 준비된 자만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면

요즘 주변을 보면 대기업 사장이나 고위 임원을 지낸 백발(白髮)의 60대 후반~70세 인사들이 방송대나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사례가 부쩍 많다.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선생님이 나 기업체 간부를 하다가 퇴임한 분들이 개인택시 운전사로 일하거나 아파트 경비원으로 변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심지어 나이가 들면 새벽 기상이 쉬워지는 점을 활용해 건강관리를 겸해 조간신문 배달요원으로 뛰는 70대 노인들까지 종종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17년 발간된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82.2세로 세계 3위다. 최근 50년 동안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8년 정도 늘었다. 100세 이상 인구가 최근 5년 새 거의 두 배 증가해 3500명에 달하고 2030년에는 1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태어난 한국인 대다수의 평균 기대수명은 107세를 넘는다.

쉽게 말해 입으로만 얘기하던 '인생 100세 시대'가 우리 사회에도 본격적으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사례는 100세 시대를 맞은 한국인들이 적응하고 변신하는 나름의 발버둥인 셈이다. 과거 10여 년 전만 해도 70세 중반이면 은퇴해 쉬는 게 당연시 됐지만 지금은 그 나이라도 밖에 나가 최소한 용돈벌이라도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 앞으로 과학기술과 의료서비스 수준이 더 발전한다고 볼 때, 지금 2030세대들은 80대 초·중·반 나이에 도 뭔가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수명이 크게 늘어난 '인생 100세 시대'는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이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축복으로 만들까. 『100세 인생(The 100-Year Life)』의 저자 린다 그레튼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정부가 조직이 100세 시대에 맞춰 정책 등을 새로 디자인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주인공인 개인이 변화에 유기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세계 경영학계의 오스카상(賞)으로 불리는 '싱커스 50(Thinkers 50)'에 5년 연속 선정된 그레튼 교수는 구체적으로 돈 같은 유행자산이나 가족·친구·연인·건강 등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새로운 경험에 항상 열려 있고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변형(變形)자산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그가 한 말을 직접 인용해보자.

“변형자산'이란 평생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앞으로 사람들은 100세 인생을 살면서 많은 변화와 과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변형자산으로는 자기 인식,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능력,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등이 있다. 이런 범주의 삶과 태도가 앞으로 다단계·다모작(多毛作·한 사람이 평생 여러 직업을 거치는 것을 의미)의 삶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레튼 교수의 권고를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해 하루 1시간만이라도 자기 관심사나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익히고 공부하는 것이다. 은행직장에서 수맥(水脈) 전문가로 변신한 A씨의 경우 직장 퇴근 후 주역과 수맥 공부를 10년 가까이 흥미롭게 한 끝에 퇴직 6개월 만에 전문가로 변신, 국내외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자기 인생을 위해 하루 한 시간의 투자와 노력을 하는 자세, 퇴직하기 전 최소한 하나의 기술이나 전문 분야를 마스터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직장 안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는 부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직장에서 시키는 한 우물만 팔 게 아니라 본인과 직장 모두를 위해 떠나는 대로 여러 우물을 파보며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보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항상 자신이 서 있는 지점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마인드다. 20~50대 초·중반 첫 직장생활에서 아무리 성공했다라도 50대 중·후반 이후의 두 번째 삶, 또는 70세 이후의 세 번째 라운드에서 실패해 좌절한다면 그 전의 빛나는 삶이 물거품이 되기 십상이다. 그런 점에서 실패와 좌절 또는 승리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길게 보는 낙관적·장기적 마음 가짐이 긴요하다. 1981년 1월 재선(再選)에 실패한 채 만 56세에 백악관을 떠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여러 단행본을 쓰고 사랑의 집짓기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세계 각국의 평화 특사로 활동하며 인생 후반부를 전반부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내는 사례는 본받을 만하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즐길 수 있는 여유와 웃음을 가진
'행복을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인생은 점점 확대되는 것인지 축소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고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문필가 LP 스미스는 말한다. “인생에서 추구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둘째를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만이 두 번째 것을 달성한다.”

외형상 아무리 인생이 화려해도 그것이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내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며 100세 인생은 끝없는 부담이 될 것이다. 즐길 수 있는 여유와 웃음을 잊지 않고 행복해하는 사람만이 한 번뿐인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 승리자가 될 것이다.



송의달 <조선일보> 오피니언 에디터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 책갈피 | 야심 찬 포부와 결심으로 시작하는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책과 함께 '작심삼일'에서 탈출해보자.

'작심삼일파'의 새해 목표 달성을 위한 책



마시멜로 이야기
저자 호아킴 데 포사다
출판사 21세기북스

새해 결심과 다짐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1월도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억 속에서 올해 계획들이 잊혀져 간다면 『마시멜로 이야기』 책을 펴보자.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성공할 수 있는 원칙을 이야기한다. '지금'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 부여와 '내일'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목표 설정까지 알려주는 주인공 '찰리' 운전기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나는 오늘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저자 그레첸 루빈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인생을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은 많이 있지만 무조건 따라 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와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자. 책은 총 5개 파트로 구성된 개인의 성향 파악과 성격별 습관을 들이는 맞춤 전략은 물론 나쁜 습관을 버리는 노하우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변화를 꿈꾼다면 당장 이 책을 펼쳐 달라진 나를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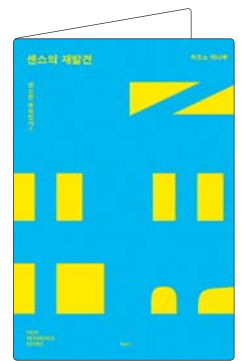
혼자라도 빛나는 밤에
저자 밤삼킨별, 김태구
출판사 꿈의지도

새해를 맞이해 조용히 혼자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생활을 찾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따라 적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명언과 속담, 글귀가 취미로 시작한 필사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급하게 책을 읽는 것보다 여유를 갖고 문장들을 되뇌며 자신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문장들을 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 책을 넘기며 페이지를 채울 때마다 감성이 충전돼 마음이 따뜻해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릇
저자 김윤나
출판사 카시오페아

성숙한 언어 습관을 갖고 싶다면 자신의 '말 그릇'부터 살펴보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내뱉은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잃은 경험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자기 내면의 감정부터 타인의 감정까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올해는 전보다 커진 말 그릇으로 마음이 느껴지는 대화를 건네보자.



센스의 재발견
저자 미즈노 마나부
출판사 하루

지금까지 '센스'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면 이 책을 주목하자. '센스는 타고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누구나 '센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저자는 '센스=지식의 축적'과 '세심함'을 강조하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한다. 올해는 센스를 길러 작은 디테일까지 챙길 수 있는 '센스 좋은 사람' 혹은 '센스 좋은 직원'이 돼보자.

강원도 비경을 찾아 '올림픽 아리바우길'을 걷다

'올림픽 아리바우길'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조성된 걷기여행 길이다. 아리바우길은 정선오일장이 열리는 정선아리랑시장을 출발해 평창의 백두대간을 넘어 강릉 강문해변으로 향한다. 모두 9개 구간으로 길이는 131.7km이다. 자료제공-(사)강릉바우길



올림픽 아리바우길 5코스 안반데기. 길은 해발 1000m 위의 고랭지 배추밭 사이를 헤집는다.

course 올림픽 아리바우길 '겨울철 추천 코스'

올림픽 아리바우길은 강원도의 숨은 매력을 두 발로 찾아다닐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그러나 쉬이 걸을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다. 제 주올레가 걷기여행 초보자를 위한 길이라면 올림픽 아리바우길은 중급자 코스이기 때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다.

겨울철 추천 코스 1구간 / 2구간 / 6구간 / 9구간
필수장비 아이젠, 스패츠, 등산화, 고어텍스 방한·방풍 등산복 등



1 대관령 아흔아홉 굽이를 돌고 돌아 내려오면 강릉이다. 대관령 반정에서 드론을 띄워 찍은 사진(6코스). 2 레일바이크는 구절리역에서 아우라 지역까지 7.2km를 달린다(2구간). 3 조양강 물길을 따라 걷는 1구간.

course 1

길이 17.1km | 난이도 중 | 시간 7시간 **겨울철 추천 코스**
주요 동선 정선아리랑시장~문곡리(강변 걷기길)~나전역

일몰 30분 전에 종점인 나전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출발시간을 정하자. 정선 5일장에 방문하고 싶다면 장날(매달 2·7·12·22·27일, 매주 토요일)에 일정을 맞춘다.

course 2

길이 21.9km | 난이도 중 | 시간 7시간 **겨울철 추천 코스**
주요 동선 나전역~나전중학교 옆 오르막길~마산재길~아우라지역~구절리역

올림픽 아리바우길 9개 구간 중 가장 길지만 대체로 평탄한 길이라 걷기에 부담이 없다. 레일바이크가 지나가는 철길이나 데크 위를 걸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course 3

길이 13.8km | 난이도 상 | 시간 7시간
주요 동선 구절리역~노추산 등산~모정탑~배나드리마을

노추산을 등반해야 하기에 9개 구간 중 가장 힘들다. 노추산 정상에서는 주변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니 날이 조금 풀리면 꼭 한번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course 4

길이 13.9km | 난이도 중 | 시간 6시간
주요 동선 배나드리마을~안반데기

설경의 경관은 너무 아름답지만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course 5

길이 11.8km | 난이도 중 | 시간 5시간
주요 동선 안반데기~고루포기산~대관령휴게소(양떼목장)

안반데기는 폭설로 악명(?)이 자자한 곳이다. 무리하지 말고 대관령휴게소에서 능경봉, 고루포기산으로 등반하는 구간을 왕복하는 것이 낫다.

course 6

길이 14.7km | 난이도 중 | 시간 6시간 **겨울철 추천 코스**
주요 동선 대관령휴게소(양떼목장)~대관령 옛길~보현사 버스 종점

대관령 옛길은 고도가 높지만 등산로가 평탄해 눈꽃 트레킹 코스로 인기가 많다.

course 7

길이 11.7km | 난이도 중 | 시간 5시간
주요 동선 보현사 버스 종점~어명정~명주군왕릉

명품 송림길로 소나무 숲에서 온종일 거닐 수 있는 구간이다. 오르내리는 길이 많아 눈이 쌓여 있거나 그 눈이 녹았을 때 위험할 수 있다.

course 8

길이 11km | 난이도 중 · 하 | 시간 5시간
주요 동선 명주군왕릉~명어재~송양초등학교

명어재를 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임도 혹은 비포장도로다.

course 9

길이 17.7km | 난이도 중 | 시간 7시간 **겨울철 추천 코스**
주요 동선 송양초등학교~죽헌저수지~오죽헌~선교장~경포대~경포호~강문해변

'신사임당 길'로도 유명하며, 사계절 내내 쉽게 걸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종착지인 강문해변은 겨울 바다 명소로도 손꼽힌다.